나로부터 모두가 있는 것이니 나부터 알라

☞ 25면에서 계속

신이 되고 이러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물이 들고 나고 들고 나듯이 이렇게 해서 기를 조달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원래 근본 자리에서 나고 들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가 떨어지면 기를 넣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컴컴하면 스위치 올려서 전깃불 켜고 들어가듯이, 또는 꺼야 되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끄고 나가듯이, 끄고 나오고 켜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자유자재권을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산천초목 풀 한 포기라도, 전체를 총 합해서 에너지라고 한다면, 에너지와 수분 모든 거를 그 뿌리에서 흡수시켜서 나무 위로 올려보낸다 이 소립니다. 나무 위로 올려보내면 나무들은 우리와 똑같이 태양열과 공기를 흡수해서 또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자꾸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어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집니다. 산천초목의 어떠한 풀 한 포기라도 우리한테 이익 되는 것을 조달하고 우리는 그네들한테 또 이익 되는 것을 조달합니다. 대변과 오줌, 모든 수분, 또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를 전폭적으로 다 줍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준다 안 준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또 공기를 흡수해서 저장했다가 다 우리들한테 또 공급합니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벌어먹는 것만 알지 벌어먹기 위해서 어떤 것을 대비하고 어떤 것을 대치해야만이 모든 걸 타파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것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라고 하면, 불(佛)은 모든 일체 생명을 말합니다. 교(敎)는 말로 전달이 되고 마음으로 전달이 되고 통신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이 전부 조달이 되는 것을 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어느 종교라도 불교 안에 있지 불교가 어떠한 개별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불교라는 것은 천체적인 진리를 이름해서 붙인 겁니다. 이 세상에 불바퀴가 안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 불바퀴가 나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뿌리 그 자체가 불바퀴니까 모든 걸 불바퀴에다가, 즉 말하자면 애고라든가 병고라든가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고 다시 환원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하고 무우만으로는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를 넣고 요리를 해서 맛있게 해서 먹습니다. 그와 같이 천차만별의 음식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듯이 관하는 법을 잘 알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라 이겁니다. 여직껏 요리를 해 보지 못해서 맛있게 먹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여기 스님네들한테도 물어봐서 요리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물에서는 또 안 그렇습니까? 물에서도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우리한테 공급을 합니까? 모습의 고기, 기름, 영양분, 약, 뭐 헤아릴 수 없이 우리한테 공급을 합니다. 우린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모두를 흡수해서 먹고 대변과 소변을, 또는 정신력의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다가 바다에서는 태양열이 반 이상,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게도 바람이 일고 태풍이 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못살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고자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니까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밑에서 사는 고기들도 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까지 다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렇게 물을 순환시켜야 살 수 있는 거죠. 태양열과 공기와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서로 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거는 어떠한 관계상 그렇게 되느냐.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달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생물들 중에서도 곤충이나 벌레들은 촉각이 아주 잘 열려서 폭풍우가 올 것도 미리 알고 금방 금방 대처를 하는데, 그러는 것도 그 앞을 내다보고 생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촉각이 발달된 게 아니고 내다보고 가는 그런 예감과 모든, 즉 말하자면 촉각이니 시각이니 하는 여섯 가지 감각을 다 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주 깊게, 촉각보다도 더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내 뿌리를 믿는 데서, 거기에서 조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미래도 다 알고 앞날도, 현재 요 시간 너머도 거기서는 스스로 알게 하고 스스로 가게 하고 스스로 완화시키고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 몸과 정신이 둘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또 생각을 해내지 못한다면 목석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몸이 없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 **나의 마음의 안테나부터 세워 놔야**
> **오고 가는 것을 다 통신할 수 있다**

그러니 머리 깎은 스님네들만 공부하는 불교가 아니라 전체가 다 불교죠. 여러분이 계시니까 불교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무슨 불교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 모셔 놓은 부처님의 형상을 믿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라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모두가 있는 거니까 나부터 알아라. 나의 마음의 안테나부터 세워 놔야 오고 가는 것을 다 통신할 수 있다. 통해야 뭐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로부터다. 내 주처는 나한테 있다. 나의 뿌리는 나한테 있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과 물과 산이 전부, 허공의 생명까지도 모두 한 손으로 그물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일체가 그물 하나 드는 거와 같다는 거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지경에 빠져도 대치하는 것은 스스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손 없는 손이, 발 없는 발이, 즉 말하자면 내 마음의 주장자 없는 주장자가 다 하늘을 받치고 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을 부처님께서 49년 동안이나 설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를 믿고, 상대의 뿌리 이름을 찾고, 상대의 나무 이름을 찾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온통 야단들이니 뭐가 전달이 되고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공덕이 될 겁니까?

공덕이란 뭔가. 모두 한데 뭉쳐서 서로가 너 나가 없이 해 주는, 아픔을 서로가 알고 내 아픔도 둘이 아니게 위해 주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공덕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시주를 했는데도 나한테 이득이 없다고 한다면…, 복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덕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덕하고 공덕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복덕은 잠시잠깐 그저 불 반짝 켜 주다가 꺼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공덕은 세세생생입니다. 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세생생의 밝음을 언제라도…, '꺼진다 켜진다' 이런 도리가 아닌 밝음의 세계로 우리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돼야지 복덕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복이 복덕이죠.

즉 말하자면 내면의 자기 자성을 믿는 데에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성으로 인해서 내 몸뚱이 나무가 살고 있구나! 자성의 뿌리로서 내 모든 것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먹는 게 혼자 먹는 건가? 내 몸뚱이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 있나! 내가 일한 것도 혼자 했나?'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하는 건 좋게 말하죠.

'내가 죽도록 애를 써서 벌었다.' 그러거든요. 아이, 참 내! 아니, 혼자 번 게 어디 있어요? 수십만의 생명들, 의식들, 모습들이 한데 작용을 해 줘서 자기 몸뚱이 하나가 움죽거려서 번 거지 혼자 번 게 어딨어요? 혼자 먹는 게 어딨고 혼자 듣는 게 어딨고, 혼자 만나는 게 어딨고 혼자 걸어가는 게 어딨습니까? 말씀들 좀 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세울 건덕지가 있을까요? 내가 했다고 세워서 '아,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잘했어.'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업이 많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했으면 업이 이렇게 많을까.' 하는 것도 없어요. 모두가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반야심경 읽어서 아시죠? 반야심경이 천체,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 팔만대장경이에요. 그것을 함축해서 거기다가 모두 한데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반야경이니 어떤 경이든 막론해 놓고 무슨 공덕이라도 들어올 줄 알고 아침저녁으로 달달달달 글자로다가 그냥 외우죠? 그렇게 염불을 하지 않나 염(念)을 하지 않나 절을 하지 않나, 별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단시일 내의 복이지 세세생생에 벗어나는 공덕은 될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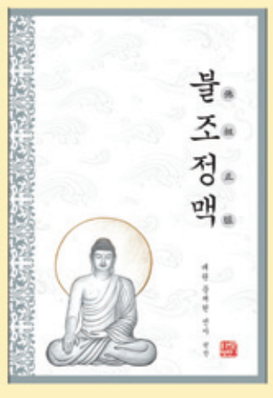
이 한 생을 살아나가는데 한 철 왔다가 가는 겁니다. 모습은 한 철이요 마음은 영원한 겁니다. 마음의 차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서 그 도리를 안다면 살고 죽는 것도 없고 그대로 영원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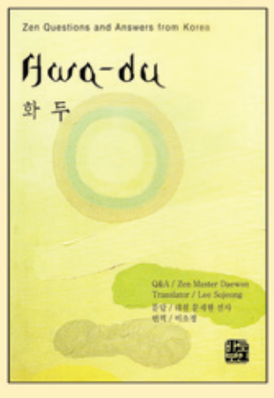
질문자1(남): 부산에서 왔습니다. 먼젓번에 안양에서 저의 집사람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마음 한번 내어 주십사 했는데, 1주일 전만 해도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만에 여기 포항까지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것 보세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서 조달이 돼 가지고 안에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 주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전체 연결을 시켜서 하지는 못하거든요. 병고는 똑같지마는 병고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신계의 50%를 모르고 현실 물질계의 50%만 알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게 많다 이런 문제가 되죠. 난 병 고치는 의사는 아니에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1월 2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불조정맥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과 정맥전법게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신간! 화두/Hwa-du
대원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영역되어 세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소개하고 있다.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佛 불광승복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복 주문하시면 사찰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1)승복일체
(2)손 누 비
(3)틀 누 비
(4)수 련 복
(5)소품일체 [향,모자,가방 등]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착복 구입하시면 착복가방을 무료로 드립니다
할인 티켓을 가져오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틀 누 비
	명주	무명	실크	기지	면
두루마기	70	65	60	55	50
통	60	55	50	45	40
적	45	40	35	35	30
바	35	35	30	30	25
조	30	30	25	25	20

손 누 비
	명주	무명	실크	기지	면
두루마기	110	100	90	85	80
방	95	90	80	75	70
상	70	65	60	55	50
지	60	55	50	45	40
끼	45	40	35	30	25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1-29 103호 한빛아크빌
02)383-3681 / 010-3879-3681 윤병대 합장
10% DC

농협융자지정업체 농협융자 1년거치 4년분할상환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 · 냉동고!!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2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